

어린이 책꽂이

▲한국사 대 세계사(전2권)=동시대 벌어진 한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역사학 습만화. 상·하권에 각각 한국사 사건 100가지, 세계사 사건 100가지 지식을 담았다.

〈서울문화사·각 1만2천원〉

▲어린이를 위한 화려한 휴가=80년 5월18일 광주민중항쟁의 상처와 의미를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힘있고 평범한 민중들이 항쟁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을 잔잔하지만 가슴 아프게 그려냈다.

〈미래아이·8천500원〉

▲소크라테스 눈술원정대 3=어린세명의 예언영웅들, 자신과 지니와 루트카 지식마왕에게 사로잡힌 철학자들과 한 판승부를 벌이며 통합눈술의 기초가 되는 철학과 과학, 수학의 핵심이론을 배운다. 제3권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변화와 정지에 관한 지식을 터득한다.

〈문학사상사·9천원〉

▲안네프랑크=전사대에 걸친 위인들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인류 문화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위인전' 시리즈. 안네의 행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당시의 국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까지 다뤘다.

〈초록아이·9천원〉

▲도서관에 간 공주님=주인공 라라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소녀다. 여가지를 해산한 딸 루션이의 어머니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속에서 라라가 끊임없이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주니어 김영사·9천800원〉

英 출신 여류 여행가 비숍의 생애

이사벨라 버드 이블린 케이 지음

지금이야 누구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여자는 이유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시대에 길 밖에서 관습과 싸우며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간 여성이 있다. 바로 '한국과 이웃 나라들'의 저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다.

고종이 가장 신뢰한 외국인 중 한명이었고 명성황후와도 우정을 나누었다고 전해지는 비숍 여사의 전반적인 생애를 다룬 책 '이사벨라 버드'가 나왔다.



1881년 3월 8일 결혼식 날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모습. 비숍 여사는 19세기 말 사회적 편견을 떨치고 세계 곳곳을 모험한 최초의 여성 여행가다.



영국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천 마리의 벼룩이 뛰다니는 일본의 여관 방부터 살원에서 반사된 햇빛으로 눈조차 뜨기 힘들었던 페르시아까지 그녀가 지구의 구석 구석을 찾아다니며 체험한 일들은 당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비숍 여사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한복을 보기 흥한 옷차림이라고 지적하고 여행 중 들른 여관에서 이렇게 뜨거운 가마솥 방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며 신기해했다"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 대한 그녀의 첫 인상은 '어느 모로 보나 단조로운 것이었다'고 전했다.

책에는 뱃속까지 파고드는 추운 날씨에 머리를 감아 머리카라미 얼게 된 이야기, 담요를 온몸에 풀풀 말고 잠을 청했던 이야기 등 여행 중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가 실렸다. 또 저자는 비숍 여사가 동생, 지인 등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일일이 찾아내 사회적 성공 뒤에 숨어 있던 한 개인의 내밀한 감정과 생각까지도 꼼꼼하게 담았다.

책을 읽다 보면 비숍 여사가 단순한 여행가만은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서양의 논리에 경도되지 않고 다른 문화의 차이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녀의 이야기는 관련한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서양식 사고를 가진 우리들이 마주치는 것들이 미개함이나 윤리의 타락이 아닌, 정교하고 고풍스러운 또 하나의 문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타락한 것이 아니며, 비록 불완전하기는 해도 우리가 존중하고 감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381쪽)

〈바움·1만8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

내 인생 한권의 책이 있을까? 부끄럽지만 난 아직 그런 책을 소개할 정도로 열심히 살지 않았다. 다만 내게 책읽기에 대한 방법과 기쁨을 느끼게 해 준 책은 있다.

"삶은 무엇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데 거의 다 바쳐져야 하고, 마지막 남은 여력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써대면서 방황하던 고등학교 시절 발견한 책이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다. 제목 때문에 읽기 시작했는데, 거의 2년여 만에 다 읽었다.

그는 책의 첫머리에 '아웃사이더란 언뜻 보면 먼저 사회문제'라고 선언하면서, 곧바로 앙리 바르뷔스의 소설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숨이 턱 막히면서 나의 어쭙잖은 자존심이 짓밟힐 듯했다. "아웃사이더는 사회와 대립된 존재이다... 그러나 진리를 표방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인 것이다." 그레 맞다. 그런데 왜 사회와 대립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또 하나의 진리 표방이란 말인가? 해답을 찾기 위해 보았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때 오른 생가 '저자인 콜린 윌슨이 읽은 책을 나도 읽어보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였다. 그래서 번역본이 있는 책이라면 다 찾

'반항 할 줄 아는 삶' 일깨워줘



아 읽었다. 앙드레 지드, 헤르만 헤세, 니체, 카뮈, 사르트르 등.

그러다 알베르 카뮈의 반항인을 읽게 되었다. "반항적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는 해도 포기하는 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그 반항적 운동의 시초에 있어 서부터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 의식이 반항과 함께 태어난 것이다. 내 생각은 '아웃사이더'에서 '반항인'으로 오고 가며, 마침내 "반항은 가치를 전제로 한다. 가치란 인간에게 공통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여기에서 반항의 사회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이 발견되는 것이고, 반항의 정당성 혹은 필연성이 발견된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묻게 된다.

"그렇다면 카뮈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했을까?" 카뮈가 애기한 부조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방인'과 '시지프스의 신화'를, 반항을 이해하기 위해 '페스트'를 찾아 읽는 등, 카뮈의 거의 모든 작품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실존주의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르트르의 '구토' '지유의 길' '어려웠지만 '존재와 무' 등을 마구 읽어대기 시작했다.

조금씩 '아웃사이더'를 내 자신이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은 혹시 서양인의 철학과 사고방식에 따른 것은 아닐까? 우리 동양인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논어' '대학' '맹자' 등도 읽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웃사이더'를 다 읽는데 2년여의 세월이 흘러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저자가 애기한 '아웃사이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 나름의 세계관과 행동규범을 어느 정도 규정하게 되었다는 기쁨이 컸다.

이것이 내가 새 학기에 만나는 아이들에게 하는 첫마디로 "반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며,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겠다는 변변치 않은 내 경험을 덧붙이곤 할 수 있는 힘이다. 책읽기가 삶의 힘을 믿으며 몇 자 적는다.

박재성<전교과 광주지부장>



일흔살 노인의 열정적 사랑 이야기

불안의 꽃 마르틴 발저 지음



사랑에 있어 나이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02년 노인들의 사랑과 성(性)을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는 늙어도 성에 대한 욕구나 행동이 젊은이에 못지않다는(?) 의식을 일깨워 주며 호평받았다.

소설 '불안의 꽃'에도 인생에 있어 행복과 불행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경험하는 일흔살의 노인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서른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손녀딸이 되는 젊은 여자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인물이다.

일흔 살이 넘는 '늙은 남자'와 젊은 여인의 사랑이라는 소재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81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자 마르틴 발저가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유머와 문체로 급진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주며 문학적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끈다.

〈문학과 지성사·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대 남아메리카 크리스탈 해골의 진실

크리스탈 해골... 모턴·토머스 공저



영화 '인디애나 존스 4-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으로 인해 고대 남아메리카 신전에서 발견된 크리스탈 해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크리스 모턴과 세리 루이스 토머스가 쓴 '크리스탈 해골의 비밀-마야 문명의 신비'는 크리스탈 해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 세계를 탐험한 두 사람의 대장정을 담은 책으로 영국 BBC에서 동명의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다.

중앙아메리카에서 휴가를 보내던 두 사람은 현지인으로 부터 13개의 크리스탈 해골은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과 미래의 운명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이 담겨 있고, 인류에 위기가 닥칠 때 13개의 해골이 한 곳에 모이면 그 해법을 찾게 된다는 전설을 듣는다. 책은 해골의 개인 소장자와 대역박물관 등에 소장된 수정 두개골을 찾아다니는 여정과 크리스탈 해골에 대한 과학적 검증 과정 등을 담고 있다.

〈크립스·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YUNDAI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대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융자대출 최고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도 현진에버빌입니다!

地友 부동산컨설팅 본선동 남구청앞 슬퍼타운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 분석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 하겠습니다.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3114-6103 (두림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림및민원 2층) 건물 6억 5천 원부터 6억 5천 원 이하 30년

생계형, 음식, 호프, 꼬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경영진단·인테리어 ▶서구 매월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 5십만 ▶서구 쌍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서구 풍암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서구 차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서구 미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광산구 옥서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광산구 쌍림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서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시설미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매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